

# 제 8 회 석유세미나토론 (全文)

이 글은 지난 11월 17일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롯데월드에서 열린 제8회 석유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 □ 주제발표자

- 李福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 安範鍾 (京仁에너지 이사)
- 李東圭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 □ 토론자

- 趙東成 (서울대 경영대교수)
- 金泰由 (서울대 공대교수)
- 송경로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 사회 =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정리 = 金乾洽 (석유협회 홍보실장)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현재 석유산업이 지향하고 있는 종합에너지산업화는 기업측면에서의 전략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이 서로 상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종합에너지산업화는 총론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각론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趙東成 = 지금까지 세 분이 발표해 주신 발표내용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판이라기 보다는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李福載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말한다면 석유수요의 구조적 특성이라든가 구조변화는 그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하시고 정리하신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약 여덟가지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으로 요약하셨는데,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를 커버하면서 총론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이러한 방안을 기업이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론에서 나타나듯이 구체적인 각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李박사님은 정부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중에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역시 상당한 개입을 해야 되고, 다만 성과면에서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총론면에서는 물론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이를 어떻게 각론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하는 사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개념적으로 성과를 기업에만 맡기는 구조를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성과는 산업의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또 각기업이 이루어진 구조안에서 얼마나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영업을 해나가는가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구조의 설정과 영업활동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

과는 결과이지 성과 자체를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구조는 정부가, 성과는 기업이 맡는다는,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문제는 정부가 설정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경쟁을 하는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업이 자기 자신의 목표설정과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석유정제시설의 고도화라든가 또는 탈황시설의 설치라든가 물론 방향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유도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올해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아니면 3년후에 할 것이냐의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기업이 언제 이것을 결정하고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를 정부가 컨트롤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같은 전략적인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발적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효율성에 있어서 유전개발을 함에 있어서 역시 총론적으로 정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얘길 하셨는데, 물론 원칙적으로 정부가 막강한 행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정부는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민간기업 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또 상황이 역전되어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정부가 두둔하려고 할 때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진 기업 보다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가진 기업이 한계적

이라든가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적합성은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론적이면서도 엄밀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마지막에 석유산업을 종합에너지 산업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代替的인 에너지를 한 기업이 수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에너지원을 경영하면서 나온 수익을 다른 代替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쓴다든가,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영업이 잘 안될 때 다른 에너지원으로 보충·보완하든가 하고 여러가지 보완적 효과도 있겠지만, 국민경제적 측면과 소비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개별주체에게 모든 에너지에 대한 경영단합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기업이란 역시 높은 이익을 내야 경영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경제에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사업에 피해가 난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종합에너지 산업화하는 기업측면에서의 전략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이 서로 상충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종합에너지산업화도 총론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각론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安範鍾이사님이 대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자료를 가지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고, 다만 30페이지에서 유연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유산업에 투자하면 유용성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유산업은 유전탐사개발사업과 구조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전탐사라는 사업은 구조적으로 항상 리스크가 개재되어 있고 또 리스크가 많은 사업의 대명사처럼 되어온 사업이지만, 정유산업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덜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산업에서는 유전탐사사업과는 다른 방향의 전략적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컨대 정

유산업의 결정적 참여자라고 볼 수 있는 각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산업정책을 설정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정유산업이 기업체·정부·소비자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건전하게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개방화시대의 석유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신 李東圭석유국장님의 발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 계신 여러 정책결정자의 발표를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여태까지 들은 내용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또 발표의 전개체계에 있어서도 아주 논리적이고 구조적이면서 또 수위가 안정되는 방향제시를 해주셔서 많은 참조가 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감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油價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아킬레스腱」이라고 할 수 있는게 51페이지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석유사업기금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석유사업기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油價가 자꾸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크게 변동되는 과정에서 油價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쌀때 기금으로 흡수해 두었다가 비쌀 때 보전하자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기본정신에서 시작되었지만, 油價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쌓여서 엄청난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부에 계신 분들을 제외한 일반국민이나 예컨대 저같이 학교에 있는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마저도 의혹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금제도 자체가 좀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마저도 상당한 의혹이라기는 뭐하지만, 이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금제도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석유사업기금의 두가지 문제점이란 결국 기금을 동자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에 나눠지고, 또 비에너지부문의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수익자부담을 이라든가 또는 부담자수익이라든가하는 면에서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로 현재 이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던간에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油價가 상당히 올라 갔을 때 엄청나게 쌓인 기금을 그때가서 동자부가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기간 유가가 올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선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유가의 상승된 부분에 전가하지 않고 계속 유가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석유사업기금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동자부에서 확실한 답을, 다시 말해서 현재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던 간에 나중에 油價가 상승했을 때 틀림없이 이것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환원시킬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부담은 크지만 국민의 오해는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두분의 토론의견을 들은 다음에 전체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金泰由교수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金泰由 = 세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동의하는 점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고 조금 입장을 달리 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는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李福載박사님께서 石油자원은 재생불가능한 고갈성 자원이라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유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네트와 몰스라는 사람이 지하자원의 고갈성자원의 상대성 가치가 증가할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질 데이터를 집어 넣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증가하지 않더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러한 데이터가 소위 시장경제이론을 적용한 데이터였던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생산했던 생산국가, 생산에 종사했던 생산자, 혹은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혹은 소비국가만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상정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이런 가격이 형성되었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자원이 고갈성자원이 아니다 하는 이유로서 석유의 매장량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매장량 증가는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의 產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로서 安이사님께서서는 생산비가 계속 증가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단위면적당 비용이 3,000달러에서 70,000달러까지 2.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고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성 에너지자원의 상대가치 하락이 현실적으로 고갈상태를 약속하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야구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과거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석유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아왔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석유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시준에 3할대의 타율을 가진 타자가 오늘 타석에 두번 들어와서 한번도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세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앞으로 유가가 다시 오를때 유가가 상승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계속 유가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 기금을 관리하는 동자부에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국민의 오해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갈성 자원의 상대가치 하락이 결국은 현실적인 자원고갈상태를 경제적인 혹은 일부 물질적인 자원고갈상태를 약속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하고 천번 양보해서 이런 고갈상태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과 에너지와 기술과 자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과 에너지는 가장 적절한 대체재로 생각하면 그 노동과 에너지는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집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자본은 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은 발전하고 자본은 축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의 가치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석유자원은 고갈성 에너지자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갈은 경제적인 고갈이 있음으로 해서 물리적인 고갈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지, 물리적인 고갈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石油은 수력발전소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물이나 태양과 같이, 플로우 리소스가 아닌 스톱 리소스의 범주에 그대로 남겨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油價의 등락, 油價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특성에 관해서는 저도 李福載박사님의 의견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美國 MIT의 아델만교수도 그러한 생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李 박사님 말씀하신 것 보다 훨씬 더 급

진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李 박사님께서 전제로 하신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이윤극대화집단이기 때문에 이윤극대화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가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OPEC가 이윤극대화의 집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石油收入, 손에 들어오는 달러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OPEC는 공급수준이나 가격에 대해 합의의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만약 油價가 급등하고 있는 동안은 OPEC 뿐만 아니라 非OPEC까지도 자신의 이윤을 혹은 收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OPEC의 정책이나 어떤 일반적인 가격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OPEC의 합의는 문서상의 합의로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윤을 위한 합의로써 잠정적으로 혹은 단기간에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安이사님 발표하신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로서 크게 언급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李東圭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료 51페이지에 油價자율화에 대해 간략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李국장님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油價가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고 또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에너지산업은 「마지막으로 자유화되어야 할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화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



일반적으로 에너지산업은 마지막으로 자유화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화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구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고 우선 동의하는 세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첫번째로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및 경제구조의 다원화에 따른 정부규제정책의 비효율성의 증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가 산업의 장기발전을 저해한다고 거꾸로 봅니다. 장기적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에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油價가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이러한 석유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며, 또 비싼 기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경제와 무역규모의 확대로 자유화에 대한 충격과 부작용에 대한 자체 흡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자체흡수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석유가격이 오르면 석유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직·간접효과를 합쳐서 30~40%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박한 국제시장에서 이러한 쇼크를 맞이했을 때 473억달러를 수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 보면 127억달러 수출할 때 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입이 22억~38억달러로 늘어났고 또다시 유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GNP의 증가가 어느 정도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위주의 정책에서 능률성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원유가의 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低油價는 과소비를 부르고, 과소비는 과잉생산을 부르고, 과잉생산은 결국 고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원경제학 측면에서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대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석유의존도 감축 및 원유산출능력 향상으로 안정공급능력이 제고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권을 국력별로 보았을 때 美國, 소련, 中國과 같이 어느 정도 자급체계를 가진 자급경제권이 있고, EC라든가 東유럽처럼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경제권이 있습니다. 또 日本처럼 지속적인 무역흑자기조로 세계자원을 사들여 세계자원을 국산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수급구조는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비축이 없었는데 이제 50일분을 비축했다고 하지만 선진국의 90일분 비축에 비하면 너무 적은 양이 아닌가. 또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가지고 확률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대개 그 기간이 8개월내지 1년 정도 오일쇼크가 계속된다고 볼 경우에 50일, 즉 두달이 채 못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



저는 소위 석유산업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고유가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석유메이저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산유국들의 석유회사에 비해서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산유국의 국책 정유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보된 것인지에 대하여 저는 굉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기본적인 의문하에서 우리나라의 석유관련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제도와 정책은 좀더 효율화되어야겠고, 또 여러가지 모순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자율화의 차원이 아닌 효율화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누구나 일단 수긍하는 자율화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의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율화, 자유화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근본적 이유는 자율화가 갖는 효율적 시장기능에 대한 산업적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자유화를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자율화가 효율성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이러한 시장이 효율성을 상실할 경우 시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어떤 것인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 우상향해야 할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과점이 이루어졌을 때이며, 또 하나는 외부경제, 소위 익스터널 이코노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초기에 거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산업이고, 또 장기산업으로서의 정유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공급곡

선이 우하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회임기간을 일반자원산업에서 7년 내지 10년으로 보고, 또 소규모의 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다소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정유산업의 경우를 가상해 볼 때 바로 이것은 독과점형태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마지널 코스트곡선이 소위 공급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애버리지 코스트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더 커져서 사회적으로 가격결정이 애버리지 코스트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이해하는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징에 의한 프레토 이피션싱,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결코 올 수 없다. 따라서 시장실패 쪽으로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은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산업은 일종의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자율시장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세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자율화가 효율화와 역행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자율화를 통한 수입개방은 국제석유가격을 국내석유가격과 일치하게 되고 그 국내가격은 국내 마지널코스트보다 작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적이거나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사서 이익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생산과 연결된 국책정유산업과의 경쟁이 국내정유산업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집니다. 또 대규모 소비국인 日本이라든가 기타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일부 제품을 외국으로 방류했을 경우, 혹은 산업의 흐름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일부제품은 고갈상태가 되고, 일부제품은 시장이 넘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국내시장이 외국시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 굉장

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정유사의 가동률이 하락해서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반적인 자유화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취약성과 국제 교섭능력의 저하가 국내소비자잉여의 대폭 상실을 초래해서 국내소비자가 비싼 외국의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자유화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저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상대적인 高油價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油價수준이 고유가인가, 저유가인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석유사업기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高油價나 低油價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라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가 어차피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 日本 밖에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에서도 그렇고, 전자산업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산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日本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우리가 日本과 경쟁을 함으로써만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나라는 산업구조도 그렇고 또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 日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韓國과 日本을 비교해 봤을 때 석유에 대한 세금이 우리나라는 배럴당 6달러64센트, 日本은 15달러84센트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석유기금을 걷고 있지만, 석유기금을 다 합쳐도 日本이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석유가격에 있어서는 韓國을 100으로 보았을 때, 경유의 경우 227%, 즉 2배가 넘습니다. LPG의 경우에는 337%, 즉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韓國의 유가를 저유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低油價가 아닌 高油價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高油價의 장점으로서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또 소비가 절약됩니다. 값이 비싸니까 많이 안쓰겠지요. 그러나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기금을 많이 거뒀었으니까 그 기금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



되는가를 찾아야 되고, 결국 기금이 없었던 시절 보다는 훨씬 더 잘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으로서의 시장왜곡에 따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화에 의해 자유화를 통해서 시장실패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점으로 집어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高油價는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너지가격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건값이 비싸져서 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석유기금의 활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趙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석유기금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일종의 목적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대체재라든가 대체재에 준한 쪽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라든가 에너지절약기술 혹은 설비의 개발이나 단열보온재등 이런 데에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하면 결국 에너지를 적게 쓰고 탄탄한 에너지내구성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면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각종기금의 비대화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늘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고, 귀로 듣고, 또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토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예를 들면 학교가 한창 어려웠을 시



66

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쉽게 말해서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싸게 구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그것으로 에너지정책은 끝나는 것입니다.

99

절에 어떤 학생이 이럴 바에야 학교가 없어도 좋지 않겠느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제3자도 학부모도 이따위 학교가 뭐하러 있느냐, 어떤 교수님도 이럴 바에야 학교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고 회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는 감상적인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학교가 갖고 있는 근본목적과 사회기여도를 전부 계산해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인 제안은 논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예산에 비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기금은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어찌서 국가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석유기금을 관리할 수 없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석유정책 내지 에너지정책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것 같으면 아주 쉽게 대답해서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싸게 사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값싼 에너지정책, 즉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못사람들이 여러가지 연구에 의해서 얘기하기를 脱油價정책을 씌우면서 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新에너지源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동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대체에너지를 쓰지 않고 현재 석유를 쓰고 있는가. 석유가 대체에너지에 비해서 더 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싼 에너지를 포기하고 비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에너지導入先을 다변화하고 석유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변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구조및 경제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되는 산업구조나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름값이 비싸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또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부존자원에 대해서는 李福載박사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비교적 경제성이 낮은 무연탄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보조없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적정비축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석유를 비축하는데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외유전을 매입하고,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리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에너지계획을 뒷받침해줄 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해결책은 자유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중 한개도 자유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高油價를 유지할 경우 여기에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으며, 또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업계는 정책범위안에서 기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해야 되겠고,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연구로써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물론 저 자신이 깊이있게 그 세부문제 하나하나까지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까지 몇차례 유가를 인하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가를 인하하는 것은 오늘의 편의를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미래의 문제를 만드는 이런 유가인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리기도 그렇고 또 시간관계상 일단 지적은 생략하고 근본적인 高油價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몇차례 국내유가가 인하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 특히 석유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오늘의 편의를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방법이 아니냐,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고 미래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가의 인하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司會=金교수님의 정열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의 宋경로이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安경로= 오늘 제가 일찍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의 두분의 주제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시켰고, 그래서 제가 코멘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李東圭국장님의 앞으로의 석유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요점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자율화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화에 대해서 지금 金교수님은 자율화에는 문제가 있으며, 유가인하는 현실의 편의를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주장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셨는데 업계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우선 金교수님의 코멘트부터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업계는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코스트의 상승과 원貨절상으로 인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것은 기업의 코스트를 좀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코스트를 낮

출수 있는데도 못낮추는 부분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석유정제업의 경영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주로 韓國銀行의 기업경영분석과 저희가 외자관리법에 의해서 외부감사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은 전부 컴퓨터에 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유정제업부분만 뽑아 보니까 제가 생각 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정제업은 상당히 高收益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작년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1.9%라면 적어도 3%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상이익은 2.9이고, 영업이익은 2.1입니다. 총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의 비용 3, 영업외 수익이 3.7,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영업외 수익에서 커버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업외 수익중에 무엇이 많은가 보았더니 환차익이 3.7중에서 2.0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본업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낮고 영업외수익에서 약간 보충이 되어서 1.7을 유지했지, 영업외수익이 없었더라면 1.7이 아니라 1.0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석유정제업이 상당히 돈을 잘 버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경영성고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선 자본구성을 볼 때 타인자본비율이 53.2%에 달합니다. 자기자본 46.8%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제조업 전체가 타인자본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조업 전체평균 보다 석유정제업의 타인자본비

율이 더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차입금보다 단기차입금이 더 높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경우를 본다면 역시 장기차입금이 높고 단기차입금은 적는데 웬일인지 석유정제업은 장기차입금 비율이 단기보다 더 낮습니다. 즉 단기 차입금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도 안좋고 타인자본을 조달한 자금운영원도 안좋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석유정제업이 상당히 高收益산업으로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자부의李國璋님이 여러가지 말씀하셨고, 또 油價관리를 완전히 자율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기에도 台灣이나 日本도 油價관리는 사실상 정부가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金교수님이 자율화가 문제시된다는 논리는 타당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부의 油價관리정책이 결국은 석유정제업의 경영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정리된 논리를 봐도 그 논리가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현행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율화의 제약요인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볼 때 과연 그럴 것인가, 자율화시켰다고 해서 안될 것인가.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油價는 내릴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석유사입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4조원을 금년에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유가인하를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금의 용도가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는 다른 논의에 속한다할지라도 더 내릴 수 있는 쪽을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특소세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소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油價를 내릴 수 있는데까지 내려서 업계의 에너지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주어야만 우리 업계도 살 수 있고, 석유정제업이라는 석유산업도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자율화란 무엇인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지요. 그리고 시장경쟁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자율화라 합니다.

그러면 정유사나 유통업을 통틀어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장경쟁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거나, 한 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엇 하나 무엇 하나는 전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율화를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강한 반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놓은 단계별 자율화추진일정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예시해 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정책이 예시대로 나갔더라면 업계가 대응해 나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작되는 것은 적어도 97년, 10년 후인데 저희가 아무리 들여다 보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려고 해도 10년후까지 이렇게 자율화폭을 열어 놓은 것은 과연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하나 하나 여러분과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90년대 후반에 가서 할일을 앞으로 2~3년내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부문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석유산업부문에만 이렇게 도입을 지연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이유이고, 다른 산업에서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 석유산업에서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李國璋님이 말씀하신 설립제한 완화라든가 정유사직영 신규판매업소 설치규제 폐지 같



경인에너지 인천공장



“ 일반적으로 석유정제업이 상당히 고수익산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것도 과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눠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학자들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간경제법령정비위원회에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최소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입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정책입안자들의 상당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의 석유정제업에 대한 기대는 큼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자, 종합에너지산업화 하자,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어디다 기대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석유산업에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판매서 돈을 끌어와서 이러한 것을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석유산업이 그러한 막중한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까 서두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경영성과를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총자본투자효율이 제조업은 28%인데 석유정제업은 12.7%에 불과합니다.

왜 이 막대한 장치산업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투자재원을 다시 유보시킬 수 있는 산업에서 총자본투자효율이 전체제조업의 2분의1에도 못미치는 12.7%에 불과한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내유보율을 봐도 제조업은 81.94%에 달하는데 석유정제업은 78%에 불과합니다. 제가 석유정제업에 대한 경영분석자료를 몇개 뽑아 보면서 완전히 놀랐습니다. 총자본투자효율, 쉽게 말하면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동안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것이 12.7% 밖에 안되어 아주 영세한 기업까지 포함된 제조업 전체의 28%의 2분의1에도 못미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충분히 경영성과를 올리고 종합에너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현재의 내수산업에서 탈피하여 국제화로 나갈수 있고 다각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한계를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각종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자율화를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 주장에 맞는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자율화는 빠를수록 좋고,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석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단기적으로는 설사 油價인하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가인하에 그것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업계의 에너지코스트를 줄여 달라는 주문을 상공회의소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자율화는 하루 빨리 앞당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3단계까지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 97년도까지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은 코멘트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으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司會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면질의서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다루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플로어에서 세분의 질의를 받고 그리고 서면질의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李武龍 = 極東精油의 李武龍입니다. 먼저 석유협회에서 「90년대의 석유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석유세



정부는 90년대 후반까지 석유산업을 자율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2~3년내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율화는 빠를수록 좋고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석유산업이 발전할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미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처해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金泰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석유산업의 자율화·자유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李東圭 국장님은 석유산업의 자율화는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자율화단계중에서 풀사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제가 자유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일부 큰 회사들이 주유소 확보에 있어서 거의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여 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자율화다, 자유화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견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애 하고 어른 하고의 싸움, 그런 상태에서의 자율화, 자유화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중소기업체를 무너뜨린 다음에 소위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더 정부차원에서 또 여러 업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2건의 질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유회사의 시설고도화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일부 정유회사들은 정부의복합평균원가기준의 가격관리정책 때문에 사내유보가 없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고도화에 소요되는 약 2,500억원의 투자비를 과연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올러서 맨처음 李福載 박사의 주제발표에서 정유회사가 유통부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정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그 일정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2개의 질문 모두 李福載 박사한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福載 = 질문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으로 증질유분해시설이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질유분해시설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수요쪽에서의 경질화도 있지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급쪽에 있어서 원유의 증질화현상도 증질유분해시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유의 증질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질원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重質油와 輕質油의 가격차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輕質제품가격과 重質제품가격의 차가 상당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全的으로 동의합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제가 한

석유협회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있는 세미나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美國 API세미나에 필적하는 세계유수의 세미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일반적인 것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결정자는 항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경제적인 위험과 정치적인 위험으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은 말할 것도 없이 시장의 가격불확실성과 수급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수익의 변동이 결국은 경제적인 위험이고, 정치적인 위험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사업수익의 변동이 곧 정치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정부규제가 없을 때에 투자자는 경제적인 위험에만 직면하면 되지만 정부규제가 있을 때에는 경제적인 위험 외에 정치적인 위험도 함께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 본래의 질문하신대로 돌아가자면 정질제품과 중질제품의 가격차가 일정한 가격차가 될 수 있으려면,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현재는 가격차가 돼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까李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국내油價를 결정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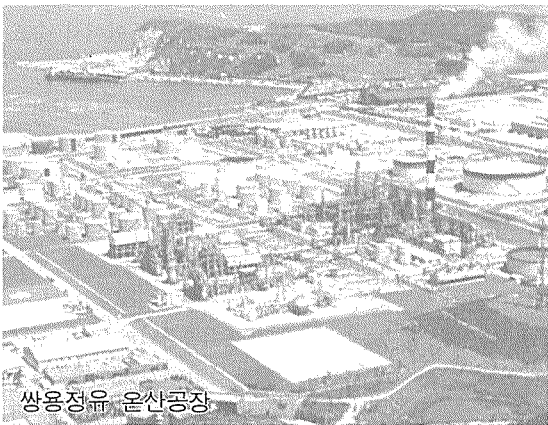
는 많은 정책적인 고려가 바탕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사회정책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輕油와 重油는 낮게 책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질제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되어서 결국에는 重質제품가격과 輕質제품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어, 따라서 중질유분해시설사업의 경제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만일 유가자유화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유수요가 증가한다면 경유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중질제품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중질제품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제품간의 가격차는 지금 질문하신 그 가격차 수준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겠는가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유업의 유통부문참여의 한도기준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유업이 유통부문에 참여하는데 시장기능에 버려둔다면 엑스터널리티 때문에 과도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그 엑스터널리티로 인해서 일정한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통부문의 참여비율, 한도를 어떻게 결정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직접적으로 국내석유유통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직접참여율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엑스터널리티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살펴보고 그 시장에 있어서의 유통부문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것을 국내유통시장 참여비율의 한계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6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자면 리파이닝 부문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크놀러지 어드밴스에 우리도 적극 동참해서 정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99

다시 말씀드려서 엑스터널리티가 없는 외국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외국시장에 있어서의 유통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가가 우리 국내유통부문 참여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약간 인덱스를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회자로서 오늘 세미나의 의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석유협회의 황부회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90년대의 석유산업」의 방향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석유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석유세미나는 올해로써 8회째를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석유협회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있는 세미나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美國 API세미나에 필적하는 세계유수의 세미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외국의 에너지관련세미나에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그쪽에서의 최대관심사는 정제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미나의 모든 관심사가 확대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구증가를 같은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 석유수요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곧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0년대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90년대의 석유산업에 관한 토론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석유산업이라는

것이 세계석유산업속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는 90년대가 우리 석유산업에 주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요약한다면, 오늘 토론에서 나왔지만, 대강 4가지의 큰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세계석유산업에서 새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리인티그레이션현상이 되겠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기업내에서 천시를 받아오던 다운스트림센터가 하나의 프락티컬센터로서 분명하게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세번째는 업스트림파트에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현상이고, 이것은 90년대까지 계속되리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리파이닝부문에서 정제기술의 발전속도가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90년대에서 갖는 의미는 이러한 산유국들의 다운스트림 진출과 같은 리인티그레이션추세속에서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 생각이 있





정부의 정책은 90년대에 가서 석유산업이 첨단산업화되고 또 다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규제할 것은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다운스트림위주로 운영을 해 왔던 우리 석유산업이 앞으로 업스트림화를 통해 리인티그레이션화해가는 미래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운스트림문제는 우리의 정유산업이 어차피 정제산업으로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케팅부문에서 보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마케팅전략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노베이티브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세계석유시장의 업스트림부문에서 재고정리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석유산업이 앞으로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는 앞으로 생길수 있는 업스트림부문에서의 제약요건을 어떻게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쟁에 이기자면 현재 세계적으로 리파이닝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에 동참을 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야만 원유소스도 다변화되고 또 수요소스도 다변화되어 정제마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제기술을 고도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석유산업이 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프로덕트부문에서 보다 더 리소스소스에 접근하는 경영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술부문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마케팅부문에 있어서는 보다더 컨센서스에 접근하는 회사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선호를 파악하여 이것을 기업이윤으로 연결시켜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濠洲에 가면 볼수 있는 셀계통의 석유회사 주유소를 보면 소비자가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셀 크레디트카드를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주유소에서 셀 크레디트카드를 가지고 1천달러 정도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은행대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행예약도 할 수 있고, 극장티켓도 살 수 있는 소위 윈스톱 커스터머 풀서비스라는 개념을 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봤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마케팅부문에서 접근해야할 석유산업 노력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우리의 석유산업이 90년대에 가서 첨단산업화하고, 또 다른 산업을 선도하는 리듬있는 수위가 되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규제할 것은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회의에서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석유산업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유업제에는 상당히 우수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석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석유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세미나의 의의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黃鎬升=석유협회의 부회장입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경청하고,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석유세미나는 저희 석유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 수록 내용이 일차 가면서 또한 회원사간의 관심도도 더욱 높아가는데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광범위한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 석유업계가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와 토론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李會晟박사님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직장인의 예절 □

## 이것만은 지킵시다

### 올바르게 절하는 법

목례는 가벼운 절(눈 인사)로서, 출·퇴근후에 상사나 선배를 만난 경우나, 자기 손님이 아닌 방문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려 할 때 앉은 채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약례는 보통 15도 정도 머리를 숙여 하는 인사인데 회사안에서 선배와의 인사나 하루 몇번이고 얼굴을 맞대게 되는 상사에 대한 절이다.

손님을 접대할 때나 방문처에서 인사할 때는 보통례로 절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30도 정도를 수그린다. 이때의 머리는 상체와 일직선으로 하고 시선을 상대의 코를 주시한다. 경례를 할때 눈을 흘뜨거나 결눈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다. 손의 위치는 남자는 옆에, 여성은 앞으로 모은다. 이때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복장·몸차림의 점검

‘사람은 외관보다 마음가짐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빈약하고 불결한 복장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요즘 세상에 복장을 무시하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다.

모든 것이 비슷한 두 사람이 한 쪽은 너저분하게 차리고 다른 한 쪽은 산뜻하게 몸단장을 했다면 어느 쪽이 호감이 가겠는가. 복장은 그 사람 자신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 예장을 한 경우와 평상복을 입은 경우의 심리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너저분한 복장은 너

저분한 태도를 낳는다.

### 올바른 인사

#### • 출·퇴근시의 인사를 잊지말것

출근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퇴근할 때엔 ‘먼저 실례합니다.’하고 원기있는 음성으로 인사한다. 먼저 출근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로 맞이하고 뒤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것. 직장에서의 이런 인사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 이면서도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 인사는 인간관계를 깊게 한다.

상대방에 대한 경의, 감사, 성의, 우정 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인사는 이쪽의 기분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친근감, 존경, 감사등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인상이 좋다’, ‘느낌이 부드럽다’, ‘안심이 된다’, ‘성실한 것 같다’ 등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야 한다.

거만한 태도, 엉거주춤한 태도, 지친 표정, 형식적인 인사 등은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 올릴 수 없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의 인사는 기본적인 것으로 반드시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하자.